

연중 기획 한국문화대탐사 ⑤ 길흉 예측하는 점

전통 부활 덕? 사회 불안 탓? 10명 중 4명이 점 보는 한국

설날 가족 모임에서 김호철(가명·56)씨는 놀랐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점(占)을 본 사람들이 꽤 많아서였다. 짙을 때 점 따위에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는 세대 변화를 실감했다. 그만큼 세상이 불안하다는 것. 불안 심리는 단 몇 초 앞이라도 미리 알고 싶은 본능을 자극한다. 동서양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은 ‘호모아우구란스(homo augurans)’, 곧 ‘점치는 인간’이다. 현대과학은 점을 부인하지만, 인류사에서 점은 늘 인간과 함께 해왔다. 한국인에게 점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코드다. 최치원의 풍류도를 의미하는 ‘현묘지도(玄妙之道)’도 합리보다 직관에 가깝다. 영화 ‘관상’에 이어 조만간 ‘만신’(무당의 놀임판)도 개봉한다는 걸 긴 생명력과 시장성을 짐작하게 한다.

안성규 기자, 이승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skme@joongang.co.kr

점은 세상 만사에 끼어든다.

2010년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경영학과 김만태 교수는 천안함 피격 직후 지역 점을 쳤다. 나라 전체가 침몰한 46명 장병의 생사에 예를 태운 때였다. 중수감(重水坎)괘가 나왔다. 물 구멍이 연거푸 두 개라는 뜻. 과연 천안함은 두 동강으로 발견됐다.

2003년 국내 모 철강회사 임원이 역학자 김성욱(『예언』의 저자)씨를 급히 찾았다. 중요 장비 이상으로 하루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술자가 보고, 검침이 수사해도 오무무중, 김씨는 주역 괘를 뽑았다. 뇌수해(雷水解). “몸이 새해를 높은 담 위에서 쏘아 잡으니 불리한 일이 없다”는 것. ‘높은 담장 위’를 살펴보고 했다. 회사는 의심되는 장비를 점검 감시해 10여 일 만에 벌임을 잡았다. 과연 내부자 소행이었다. 김 교수와 김성욱씨는 정해진 운명을 본 것인가.

만신 김금화(83세, 14세에 ‘인’이 내린 뒤, 70년간 무속인으로 살아왔다. 인간문화제인 그를 지난날 24일 만났다.

10여 년 전, 김씨는 꿈에서 천 길 날떠러지에 섰다. 떨어지려 죽는데… 애라 모르겠다. 날다 떨어오르니 파란 풀이 깔린 평지, 손을 흔들며 뛰어다녔다. 다음 날 아침 한 아이 아버지 전화를 걸어왔다. 병명도 모르는 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당시 8살)을 살펴달라고 했다. 부인은 가톨릭 신자. 그때부터 김씨는 애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투약과 수술 문제로 병원과 씨름을 벌였다. 요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 10여 일 싸움에서 김씨는 승리했다. 아이는 지금 건강하다.

이런 일들은 합리적 사고 체계에 난감함을 안긴다. 도대체 점이 뭐라고 국가-대기업-개인에게 두루 존재를 드러내는가. 사주·궁합 같은 문제로 최대화된 점에 걸려들지 않는 인간사는 없다.

그러나 천천히 따지면 사례들의 연문이 가득하다. 주역 괘를 왜 꼭 그렇게 해석했을까, 달리 해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까. 김금화씨는 왜 운명을 확신했고 꿈의 어떤 부분이 치료 거부와 관계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아이 언마나 의사가 말을 안 들었다면 어찌 됐을까. 그런 것에는 전혀 영향 받지 않는 운명을 만신은 봤다는 건가. 점을 믿느냐 마느냐는 물음은 인류문화사만큼 오래된 질문이다. 『삼국사기』를 보라.

#사례 1-(신라) 제2대 비차왕(또는 소지왕)이 488년 천천정(天泉亭)으로 갔다…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아니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글을 길봉에 쓴 편지를 줬다. 일관(1일)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 한 사람은 왕”이라고 해석했다. 왕이 여니 “거గు고 감을 쓰라”고 돼 있었다. 왕이 궁중에 들어가서 거గు고 감을 쓰니 왕비와 왕이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사례 2-(신라와 당) 군사가 강나루 어귀에 닿았다. 갑자기 세가 소정방 위를 날렸다. 점을 치자 나쁜 징조였다. 김유신이 말했다. “어찌 나는 새 한 마리의 괴이한 것으로 하늘의 때를 어길 수 있겠소.” 그러곤 신검으로 겨누니 세가 찢겨 떨어졌다. 소정방이 나가 싸우니 백제 군사가 크게 패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세 자매 모이이라(Moera) 여신이 모이라(할망)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한국 속담도 ‘팔자 모양은 목 안에 틀어넣어도 못 한다’고 한다. 운명론이다. 그러나 진나라 사람 관박(郭璞·276~324)은 풍수지리서 『금강지점(錦囊秘)』에서 ‘신이 할



199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많아 인터넷 카페 늘어 젊은 층도 몰려

고려 때까지 점이 갖는 지위 탄탄 성리학 국가 조선도 관상감 설치 식민지-근대화 겪으며 쇠락의 길

바를 빼앗아 천명을바꾼다”고 했다. 점을 놓고 김교수와 의지론은 늘 충돌한다.

전통사회에서 점은 흥(喜)을 피하고 길(吉)을 찾는 수단이었다. 고려 때까지 점은 그 지위가 탄탄했다. 조선은 달랐다. 합리(合理)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나라답게 점을 경계했다. 양반-사대부는 점을 점지 멀리했다. 근·현 대에도 점은 타파해야 할 미신이며 책벌 대상이었다. 김금화씨도 “70년대에 미신을 퍼트린다고 청량리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회상했다. 다만 논리가 ‘합리’인 시대에 점을 멀리하는 것이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였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속사정은 달랐다. 조선에서 왕실은 관상감을 두고 점을 쳤



서울 미아리 고개 옆 점집들. 미아리로 배려했던 점이 요즘 슬금슬금 확장되기 시작했다.

다. 사대부는 육욕의 사주 명리학으로, 백성은 토정비결로 점을 봤다. 세조는 1458년 ‘녹명서(사주풀이)는 유학자가 궁리하는 하나의 일’이라며 서거정(1420~1488)에게 사주풀이 책을 쓰라고 하명까지 했다. 그래서 한국의 첫 명리서(命理書) 『오행총괄』이 나왔지만 저자는 ‘사주는 못 믿을 것’이라고 했다. 식민지배의 합리화를 위해 쓴 책이지만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근대 조선에서도 점은 맹위를 떨쳤다고 전했다.

현대도 마찬가지다. 김만태 교수는 2010년 ‘점초 점복풍속에 관한 연구’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경북 칠곡 왜관읍 마을엔 점초 토정비결을 파주는 이들이 들어왔다”고 했다. 80년대 서울 거리에 토정비결 노점도 있었고, 남산-미아리엔 점집이 늘어났다. 관상 전문가인 원광디지털대학 얼굴경영학과 주선희 교수는 “20년 전 김영삼 정부의 경제장관 K씨도 매일 주역 점을 쳤다”고 했다.

이런 ‘이중성’은 진행 중이다. 아산정책연대자 여론조사센터(센터장 김지은 연구위원)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의 점치는 비율이 뜻밖에도 높았다. 전체 평균 38.3%인데 블루칼라와 30.2%, 화이트칼라는 42.5%였다. 지식인이 점을 더 보는 것이다.

더 흥미 있는 내용은 ‘점 경험자가 38.3%’라는 대목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91년 19.6%, 95년 16.5%, 96년 18%에 비해 이번 평균 두 배 넘게 뛰었다. 19세 이상 인구 4000만 명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이상이 점을 봤다. 97년 인구 기준 600여 만 명보다 1000만 명이 가까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점술 시장이 97년 중사자 40만 명, 매출액 1조4000억 원이었는데 2007년 55만 명, 4조원대로 성장했다”고 추정한다. 왜 폭발하듯 늘었을까. 관련 연구는 없지만 ▶97년 금융위기 뒤 불안이 가중되고 ▶인터넷의 점 사이트가 늘어 점근이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확성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통계청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통계’도 2008년까지 점술 업체가 활발이었음을 보여준다. 점술업이 2006년 1만5690명에서 1만5628명으로 늘었다. 업체는 각각 1만4631개-1만4625개-1만4715개였지만 매출은 2503억원-2733억원-2789억원으로 줄곧 늘었다. 김교수씨는 “무당 희망자가 3~4년 전까지 많이 늘어 여가지가 깃발이 펴졌었다”고 했다. 18년간 종로에서 영영한 한 무속인은 “5년 전에 장사가 가장 잘됐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불경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점술업이 2009년부터 1만5711명(2009년)-1만5153명(2011년)-1만4384명(2012년)으로 줄었다. 2012년 매출도 정점이었던 2008년보다 150

억원 줄었다. 무속인 회원 30만 명이라는 ‘대한경신연합회’ 최수진(56) 회장은 “전통 무속 점은 역대 최악의 불황이다. 형편이 어려운 무속인들이 파출부나 음식점 종업원으로 나간다고 했다. 상층부는 나를 버려도 대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무속계의 양극화’다.

점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린 듯하다. 점에 대한 개방성 때문이다. 아산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점치는 20대 젊은이 비율 38.3%인데 블루칼라와 30.2%, 화이트칼라는 42.5%였다. 지식인이 점을 더 보는 것이다. 더 흥미 있는 내용은 ‘점 경험자가 38.3%’라는 대목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91년 19.6%, 95년 16.5%, 96년 18%에 비해 이번 평균 두 배 넘게 뛰었다. 19세 이상 인구 4000만 명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이상이 점을 봤다. 97년 인구 기준 600여 만 명보다 1000만 명이 가까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점술 시장이 97년 중사자 40만 명, 매출액 1조4000억 원이었는데 2007년 55만 명, 4조원대로 성장했다”고 추정한다. 왜 폭발하듯 늘었을까. 관련 연구는 없지만 ▶97년 금융위기 뒤 불안이 가중되고 ▶인터넷의 점 사이트가 늘어 점근이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의 사주 카페와 노점 사주팔자를 들러왔다. 20대 손님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재미’로 봤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학-애인 같은 나름 무거운 주제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20대 남성 K씨도 심심하면 인터넷 점을 보고 좀 해몽도 한다. 점에 친숙한 젊은 세대는 일시적 조정기가 끝나면 점의 새 풍속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시대의 변화상은 점괘 해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김만태 교수는 토정비결의 첫 과언 11개를 사례로 변화 양상을 살렸다. 1918년부터 63년까지 개사는 줄곧 하나였다. 그러다 64년 돌연 14개로 늘어 월(月)별로 두 줄 설명이 나타났다. 2003년엔 더 늘어 월별 괘



▲서울 종로3가 탐골공원의 점집들. 젊은 사람들은 ‘재미’로 본다지만 사실은 운명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를 묻는다.

▲인간문화제이자 무속인의 김교수씨, 83세인 데도 정철하고 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무속인 생활 70년. 그에 따르면 무속인은 카운슬러이며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점을 파주는 이의 도리라고 한다. 점을 보는 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문득 궁금하다.

사가 세 줄이 됐다. 왜 늘었을까. 김 교수는 “64년은 산업화가 시작되며 사회경제적 욕구가 커지는 시기”라며 “이에 따라 단순했던 폐사가 복잡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상도 변화 폭이 크다. 주 교수는 “의미나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전연 여성의 광대뼈가 크면 팔자가 드센 과부상, 남편 잡아먹게 생긴 여자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대기업 사모님 상이다. ‘물기가 축축한 눈’도 전연 도화기로 봤지만 요즘은 감성적 눈으로 좋게 해석한다.

그런데 점을 이런 식으로 미화하면 되겠는가. 실제론 많은 문제가 있다. 점 전문가들은 “운명론에 빠지게 하며 중독을 일으킨다”(김만태 교수), “점에는 도덕적 제어가 없다. 도덕질을 위해 칠 수도 있다”(역학자 김성욱), “배우진 않지만 못쓰겠다 싶은 사람도 점치러 온다”(김금화씨)고 한다.

통계가 없어 그렇지 잘못된 점도 허다할 것이다. 사주가 같은 쌍둥이의 다른 삶은 어떻게 설명할까. 방송엔 점의 폐해가 자주 나온다. 서거정도 “육십갑자로 보면 사주가 5비만8400개인데 백성은 억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김교수씨도 “나도 틀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씨는 “『백서(白書)주역』이 높고 이를 공부하는 20대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금화씨도 “전반도 적지만 그래도 젊은이는 늘었다”고 했다.

취재팀은 서울 종로3가, 압구정 일대에서 점 보는 자의 문제도 있다. 김교수씨는 “혹 세무만하고 사기 치는 사람이 있다”며 “점은 카운슬러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점을 봐줘야 한다”고 말한다. ‘적중률이 높다’는 김성욱씨도 주역 점을 위해 일주일간 삼가고 몸을 정결히 한다.

어쨌든 점시장이 확장되는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과학문명의 시대지만 점은 한국 전통 DNA의 일부이자 오늘날 사회·문화 현상이기도 하다. 다시 요런으로 돌아보자. 제자들이 공자를 비난했다. “주역 점이나 무당이나 점쟁이의 점이나 마찬가지로.” 공자가 답했다. “후대에 나를 의심한다면 주역 점 때문일 것이다. 가는 길이 무당, 점쟁이도 잘못도 한다. 점에 친숙한 젊은 세대는 일시적 조정기가 끝나면 점의 새 풍속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시대의 변화상은 점괘 해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김만태 교수는 토정비결의 첫 과언 11개를 사례로 변화 양상을 살렸다. 1918년부터 63년까지 개사는 줄곧 하나였다. 그러다 64년 돌연 14개로 늘어 월(月)별로 두 줄 설명이 나타났다. 2003년엔 더 늘어 월별 괘

한반도 역사 속의 점

이순신, 장문포 해전 전날 점치고 작전 개시

이승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 9월 28일. 장문포 해전 전날. 『난중일기』에 따르면 훗날 성용(聖庸)이라 불릴 당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은 복점(卜占)을 쳤다. 이 해전은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이 기획한 합동 작전. 좌의정 윤두수가 원균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영의정 류성룡의 건의로 선조는 작전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명령이 도착하기 전 작전은 시작됐다. 결국 왜선 두 척만 격침시켰다.

이런 사태 전개를 장군이 미리 알 수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불안했을 것이며 자연스레 점을 쳤을 것이다. 그전 7월 13일에도 아들 면의 병세가 걱정돼 척자점(擲字占) 숫자를 던져 치는 것, 율점을 한 유행을 두 번 치기도 했다. 모두 김(金)해 마음이 놓였다고 『난중일기』에는 나온다. 성용도 그럴 판이니 과학시대가 아닌 마당에 보통사람이라면 점은 생활의 일부였을 것이다.

한국에서 점은 기원전부터 신앙생활과 의례행위의 일부였다. 기원전 2세기께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점복옥의 복골(卜骨)이 발견되었다. 중국 쪽 기록인 『삼국지』 ‘위서(魏書)’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는 ‘부여는 군사를 일으킬 때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소를 잡아 그 굽을 보고 길흉을 점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에서 유래한 관직명도 ‘일관(日官)’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관은 고대에 천문(天文) 역수(曆數)와 시일의 길흉을 가리는 일을 맡아보았다. 고려는 개국 초기에 천문, 역수, 측후수(測候), 각부(刻漏)의 일을 맡아보는 태복(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을 두었다. 그 소속 관원 중에는 복박사, 복점, 복조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점복을 주관했을

아산정책연구원 ‘점’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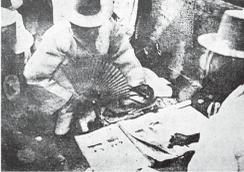
점집 찾는 성향은 이념·학력과 관계없어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연구센터장

점을 치는 사람은 이념과 교육 정도와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궁합에 대한 신념도 낮았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센터(센터장 김지은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점의 경험과 신념’ 등에 관한 본격 인문학적 조사로 지난 16~18일 전국 1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점을 쳐봤다”는 응답은 38.3%였는데 진보 40.0%, 중도 37.4%, 보수 38.8%로 나타났다. 진보보다 보수가 점을 더 볼 것이란 ‘보통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중졸 이하 39.9%, 고졸 이하 39.1%, 대졸 이상 37.2%였다. 직업별 조사에서는 가사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역 점이나 무당이나 점쟁이의 점이나 마찬가지로.” 공자가 답했다. “후대에 나를 의심한다면 주역 점 때문일 것이다. 가는 길이 무당, 점쟁이도 잘못도 한다. 점에 친숙한 젊은 세대는 일시적 조정기가 끝나면 점의 새 풍속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시대의 변화상은 점괘 해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김만태 교수는 토정비결의 첫 과언 11개를 사례로 변화 양상을 살렸다. 1918년부터 63년까지 개사는 줄곧 하나였다. 그러다 64년 돌연 14개로 늘어 월(月)별로 두 줄 설명이 나타났다. 2003년엔 더 늘어 월별 괘



1900년대 초 경주의 점치는 모습.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

가능성이 크다. 태복감과 태사국은 나중에 서문관으로 통합된다. 또 서경(西京)의 학교에는 복점이란 점복 관련 과목이 개설됐고 과거시험의 하나로 복점과가 실시됐다. 서문관은 선조 초 세종 7년(1425)에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하고 예조(禮曹)에 편제됐다.

부여 뎨소 잡은 뒤 굽 보고 점쳐 삼국시대엔 ‘일관’이 길흉 가려 조선시대엔 과거시험으로 선발

이것은 오늘날의 기상청과 천문대에 해당한다. 소관 업무에는 점산(占筮)이 있는데 그것이 점치기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관상감의 관원은 음양과라는 과거를 통해 선발됐다. 시험은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점박자는 명과학(占筮)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특히하게 시가지역안에 점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시대엔 점은 성원리를 이용해 미래를 정확히 예지할 수 있다는 지혜를 담은 최초의 인문학적 점서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운명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점사로 출발했다는 태생적 이유로 『주역』은 여러 점에 응용되면서 경전과 점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지역을 겸비한 완전한 인문학(성인)만이 주역의 명(星命)과 복과(卜課) 관련 전문직이었다. 그 소속 관원 중에는 복박사, 복점, 복조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점복을 주관했을

아산정책연구원 ‘점’ 여론조사

점집 찾는 성향은 이념·학력과 관계없어

점에 관한 여론조사

| 점집 찾는 성향(%) | (본 사람)38.3 | 61.7(인 본 사람) |
|-------------|------------|--------------|
| 성비(%) | 남성 30.5 | 여성 45.9 |
| 이념(%) | 진보 40 | 중도 37.4 |
| | 보수 38.8 | |
| 직업(%) | 가사 47.2 | 화이트칼라 42.5 |
| | 직업명 41 | 블루칼라 30.2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센터

치는 주부도 크게 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도 직장 생활보다 불안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며 특히 불경기 때는 ‘점이러다 봐서’ 불안감을 덜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찾는 편 ‘점괘 믿는다’는 10명 중 2명꼴 젊은 층 “궁합보다는 사랑이 우선” 여성이 점에 더 빠져드는 것일까. 여성의 점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 중 직접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대체로 주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 문제, 남편 직장 문제, 집안일 등 온갖 걱정을 시달리는 사람이 주부이며 시간적으로 다소 자유롭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점을

용한 것으로 산통점은 그중 하나다. ‘산통 깨지 마라’는 속담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일본의 신사나 사찰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비뽑기의 일종인 ‘오미쿠지’도 이와 비슷한 원리다.

데다수의 점박자는 과거와 인연이 없고 사대부나 서민의 점을 봐왔다. 신점(神占)을 보는 무속인은 여성이 많고, 역리(易理)나 관상에 바탕을 둔 점술 종사자는 남성이 많았다. 신년운세로 토정비결과 같은 사주를 보고, 땅이나 점성 고를 때 풍수를 보고, 혼례 때 궁합이나 택일을 보고, 성명으로 길흉 화복을 판단하고, 관상으로 사람의 성격과 심성은 물론 미래까지 보았다. 한국의 전통 점들은 종류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

점은 고대 이래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는 복골을 이용한 점이 이미 신석기시대에 행해졌다. 복골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은대(殷代:B.C. 16~B.C. 11세기)의 갑골문이다. 그때는 정인(貞人)으로 불리는 직업적 종교인들이 왕의 결에서 갑골점을 이용, 왕조의 대소사에 대한 길흉화복을 가졌다.

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역』이다. 『주역』은 처음으로 점서로 출발했다. 하지만 유가(儒家)가 경전으로 택하고 삼익(경문에 관한 열 가지 해설)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면서 운리와 정치를 담은 철학서로 변모했다.

그러나 점사로 출발했다는 태생적 이유로 『주역』은 여러 점에 응용되면서 경전과 점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지역을 겸비한 완전한 인문학(성인)만이 주역의 명(星命)과 복과(卜課) 관련 전문직이었다. 그 소속 관원 중에는 복박사, 복점, 복조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점복을 주관했을